

# 광주시, '창업기업 실증 홍보서포터즈' 본격 활동

## '광체단' 발대식... 대시민 홍보

카드뉴스·영상 콘텐츠 등 제작  
올해 44개 기업 실증지원 목표  
"우수기업 혁신제품 널리 홍보"

광주시가 혁신기술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뒷받침할 홍보서포터즈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홍보 서포터즈 '광체단(광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체합단)'은 올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초기제품 실증에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대 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실증지원사업 알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50명으로 구성된 '광체단'은 오는 11월까지 3개월여동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짧은 영상 제작, 영상콘텐츠촬영·제작, 취재후기 작성



광주시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시 제공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즈들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들이 광주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

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시

장출시 전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내어주며, 지난해 36개 기업 지원에 이어 올해 44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 3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혁신기술 실증제품들은 △속면 유도 테라피 제공 수면케어캡슐 △인공지능시스템 기반 도로상태정보플랫폼 △사물인터넷 기반 냉각기 효율 향상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순환기 △시니어 전용 헬스케어 솔루션 하루핏 키오스크 △탈중앙화 원격안면인식 출입 인증 게이트 △친환경 살균 수처리 쿨링포그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나순창업진흥과장은 "광주시가 창업기업에게 제공한 다양한 실증의 기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서포터즈(광체단)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haghi@jnilbo.com

## 광주시 "수산물 비브리오팀 주의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 검출률 증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유통 수산물과 해수(수족관수)에서 비브리오팀 검출률이 상승하고 있어 수산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오염도 추적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과 지역 도매시장 해수(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비브리오팀 검출률은 1~5월 7.7% (2건 검출/26건 검사)에서 6월 15.0% (3건 검출/20건 검사), 7월 18.4% (7건 검출/38건 검사)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장염비브리오팀이 검출된 가운데 7월 들어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 2건(수족관수)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팀에 감염되면 설사와 미열이 동반될 수 있고,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비브리오팀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 조리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횡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해서 2차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노병하기자

## 영암 대불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선정

### 2028년까지 총 492억원 투입 도로·공원·녹지공간 등 정비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대개조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단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충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불 국가산단 공모사업

은 총사업비 492억 원(국비 246억 원·지방비 246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공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지는 서남권 경제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준공 후 27년이 지나 기반 시설이 노후하고, 선박 블록 제조 분야 위주의 단편적 산업구조인 조선업 업황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이 발생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전남도는 2022년부터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영암·함평·해남·화남·목포 삼진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한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27개 사업,

3571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도로 개·보수, 주차장 확대, 공원 재정비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높아져 산업단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최근 친환경·스마트 미래 선박 수주가 증가하는 등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연계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재도약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 전남도,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전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17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48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하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로 아파트 단지나 도시공원에 설치된다.

전남도는 우선 곡성군, 무안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진행하고, 나머지 15개 시군과도 오는 31일까지 수

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성수기에 대비해 지난 6월에 실시한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여부 △안전교육 이수·보험 가입 여부 △안전요원 배치 운영 현황 △물놀이 시설 상태 전반 △배수구 주변 기밀 방지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완료 시까지 이용금지 조치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지현기자

## 전남도, 서울 동행상회서 수산물 팝업스토어 운영

### 전북·어묵 등 23종 최대 30% 할인 12일부터 네이버서 온라인 판매도

전남도가 서울 동행상회에서 전남산 우수 수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 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설 판매장으로, 서울시민에게는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역 농·어

가에게는 판로를 지원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전남도는 이번 서울 동행상회에서 '감동의 힐링푸드 전남 수산물'이란 슬로건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북 어묵, 순살 전복, 저염식 수제 김부각 등 새롭게 개발한 23종의 수산물 가공제품 등을 최대 30%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는 네이버 스

마트스토어 '서울동행상회'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를 진행, 손질 전복과 슬라이스 전복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유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어가에 가공·유통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6000세대를 대상으로 수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기자

## 전남도, 섬 지역 추가 택배비 연중 지원

### 연령제한 폐지 등 사업 확대

전남도가 비싼 택배 요금이 부과되는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 추진했던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확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시범 추진해 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사

업을 연중 지원하고, 지방비도 추가 투입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령제한을 폐지해 모든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택배 한 건당 지원 한도를 삭제해 추가 부담한 금액을 실비로 지원한다. 섬 주민이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수·발신)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오지현기자

## 광주 온열질환자 38명... "94%가 야외서 발생"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물·그늘·휴식 폭염 3대수칙 준수"

광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의뢰기관 26곳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현재까지 광주지역 온열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38명(열사병 13, 열탈진 17, 열실신 3, 열경련 4, 기타 1명)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81.6%로 여성보다 많았다.

온열질환은 주로 작업장(55.3%)과 논밭(13.2%) 등 실외(94.7%)에서 많이 발생했고, 주요 질환은 열탈진(44.7%)과 열사병(34.2%)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오심, 구토, 근육경련, 위약감, 체온 상승 등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은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활동 때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면서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노병하기자